

marie claire

exclusive interview

노래로 유혹하는 김준수

LOVE & SEX

못된 남자와의 황홀한 섹스
컴퓨터게임과 나, 둘 중 하나만 택해라
개츠비 같은 남자와의 연애



비주류의 시각으로
샌프란시스코 여행하기

**SEXY
SUMMER STYLE**

건강미 넘치는 패셔너블 서핑 룩
블랙 레더와 프린지의 만남
농염한 란제리 룩

RESORT LOOK BATTLE

어떤 체형이라도 과감하고 자신 있게!
뚱녀 VS 말라깽이

@play

클럽 열전, 너희가 궁극의
향락을 아느냐?

cover

LEA SEYDOUX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 <아델의 삶-1&2>에서
열연한 프랑스 여배우 레아 세이두

THE BEST BUDGET BEAUTY 15 WIN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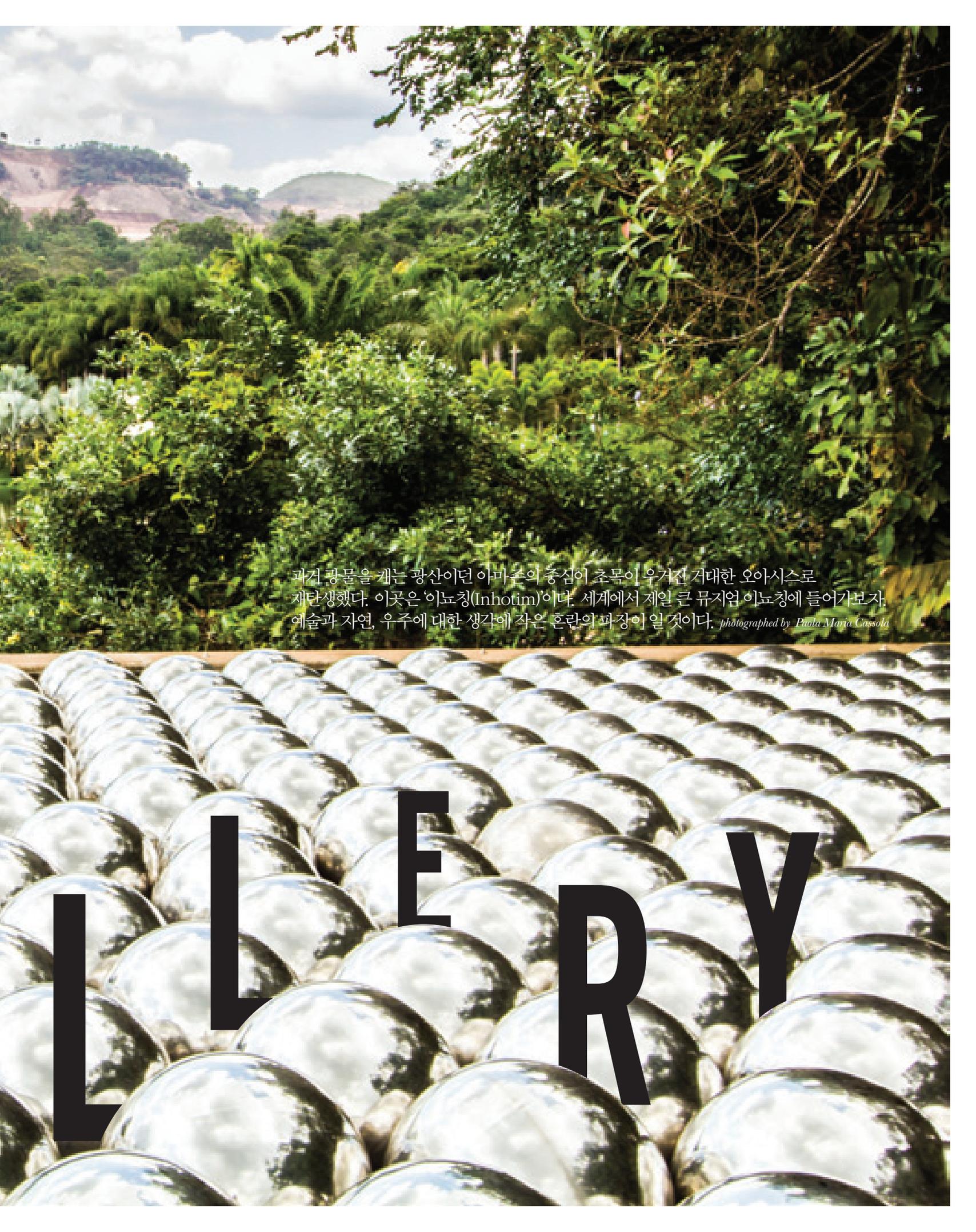
2013 SMART
BEAUTY AWARD

마리끌레르가 올리브영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뷰티 아이템

world report

land

GA



과거 광물을 캐는 광산이던 아마존의 중심이 초목이 우거진 거대한 오아시스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이노칭(Inhotim)'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뮤지엄 이노칭에 들어가보자.
예술과 자연, 우주에 대한 생각에 작은 혼란의 파장이 일 것이다. *photographed by Paula Maria Cassola*

ALLERY

에덴동산을 떠올려보자. 희귀한 식물과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아주 푸르른 곳을 말이다. 그곳이 바로 브라질의 이노칭(Inhotim)이다. 그러나 이노칭은 인간이 만든 인공의 파라다이스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지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궁금하다면, 직접 떠나보자. 이노칭은 브라질의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를 거쳐서 갈 수 있다. 이 도시들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 더 가면 지역의 대부분이 브라질 고원에 있는 미나스제라이스 주(Minas Gerais)의 주도 벨루오리존치(Belo Horizonte)에 착륙한다. 약 2백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공업 도시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도시의 건축물을 뒤로하고, 자동차로 한 시간가량 달리면 드디어 이노칭에 도착한다.



주세페 페노네(Giuseppe Penone), 'Elevazione'(2001).

미나스제라이스 주는 광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금, 다이아몬드, 철, 니켈, 크롬 등의 광물이 채굴된다. 특히 철광 자원이 풍부해서, 세계 철 채굴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구불구불하고 험준한,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길을 따라 들어서면 광석 가루로 뒤덮여 폐허가 되어버린 풍경이 펼쳐진다. 채굴 작업이 남긴 끔찍한 흉터들이 남아 있어 황량하기 그지없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다.

이곳을 낙원으로 바꾼 사람을 '설립자'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노칭의 설립자는 1950년대, 엔지니어 아버지, 아티스트 어머니와 함께 이 지역에 왔다. 열세살 때 주유소에서 일했고, 옷 가게에서 일하기도 했고, 광부로 일하기도 한 그는 이후에 브라질 광산계의 대부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베르나르두 지 멜루 파스(Bernardo De Mello Paz)인데, 지금은 베르나르두 파스(Bernardo Paz)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한 그는 채광 산업 분야에서 예술계의 피즈카랄도(Fitzcarraldo) 역할을 했고, 이노칭 미술관(The Instituto Inhotim)을 만드는 데 인생을 바쳤다. 그는 현재 브라질의 가장 영향력 있는 컬렉터이기도 하다.

그는 어느 시골 가정집의 정원 일을 하면서 1960년대의 예술을 처음 접했다. 그 일을 계기로 컬렉션에 관심을 가지고 갤러리에 출입하기 시작했고, 1988년 마침내 자신의 컬렉션의 첫 작품을 만나게 됐다. 친구 텡가(Tunga)와 시골 아저씨의 작업이었다. 이후 그는 채굴하면서 손에 넣은 몇몇 광물을 팔았고, 작품을 사들이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크리스 버든(Chris Burden), 매튜 바니(Matthew Barney), 올라퍼 엘리아손(Olafur Eliasson), 주세페 페노네(Giuseppe Penone), 그리고 자신의 전 부인이기도 한 아드리아나 바레장(Adriana Varejão)까지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1백여 명의 예술가들의 설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가 만든 이노칭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열린 갤러리다.

지금 우리는 총 20만 평 부지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노칭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다. 이노칭 프로젝트에는 1천7백여 개의 객실이 있는 일곱 개의 호텔이 포함돼 있다. 그중 두 개는 이미 건설 중이다. 컨벤션 센터, 1천6백 석 규모의 극장, 약 14만 권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도 갖췄다. 여기에 공항까지 들어설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니, 하나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노칭(IN-HO-TIM)이라는 발음은 언뜻 미술 주문같이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팀(Tim)의 정원'이라는 평범한 뜻이다. 이 땅에서 살았던 20세기 지질학자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안테스 산맥의 고산 고원인 알티플라노(Altiplano), 녹음이 우거져 온통 푸른 지역에 있는 이노칭에는 인간의 본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다양한 생물과 각종 식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노칭 미술관의 가장 멋진 수집품은 4천5백여 종의 식물과 1천4백여 종의 야자수들이다. 원래 광물을 캐던 동굴이었던 에메랄드빛 호수 위에는 호조가 떠다닌다. 한쪽 길은 온통 야생화가 차지하고 있다. 이 공간은 제한이 없다. 유칼립투스가 펼쳐진 숲과 야자수가 늘어진 길을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길을 잃을 법한 규모다 싶는데, 실제로 이곳을 방문한 설립자의 친구와 브라질의 조경 디자이너조차 이노칭 미술관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고 한다.

갤러리들은 녹음이 우거진 호수 옆이나 숲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 각각 약 1천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상





아드리아나 바레장 파빌리움(Adriana Varejao Pavilion).



자르바스 로페스(Jarbas Lopes), "Troca-Troca"(2002).



마레피(Marepe), 'A Bica'(1999).

설 전시도 계속된다. 여기에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1백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완성한 5백여 개의 작품이 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 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Site-specific'이다. 이 작품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은 건축가, 지역 큐레이터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몇 년 동안 이곳의 자연과 문화를 해석했고, 그리하여 이 작품에는 자연의 신비와 수수께끼가 담기게 되었다.

그리고 뉴욕 출신의 설치미술가 매튜 바니의 작품 'De Lama Lâmina'(2009)가 있다. 운석 형태의 유리와 강철로 만든 두 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우리를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정글로 초대한다. 그 안에 나무를 들어 올리는 트랙터가 서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자연과 그에 반하는 인간의 욕심의 충돌을 상징한다. 작은

언덕의 꼭대기에는 미국 출신 아티스트 더그 에이트킨(Doug Aitken)의 작품 'Sonic Pavilion'(2009)이 있다. 지하 2백 미터 깊이의 땅속에서 소리의 주파수를 전송해 관람객에게 땅 깊숙한 곳의 소리를 전달한다. 미국의 저명한 설치 아티스트 크리스 바든은 광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빔을 설치했다. 덴마크 아티스트 올라퍼 엘리아손은 'Viewing Machine'(2008)이라는 거대한 만화경을 설치했다. 이 작품들은 정글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정글이 팽창하는 느낌까지 안긴다. 정원의 물 위를 따라 떠다니는 5백 개의 미러볼은 일본 아티스트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작품 'Narcissus Garden Inhotim'(2009)이다. 물속에 비친 자신에 모습에 한껏 취한 나르시스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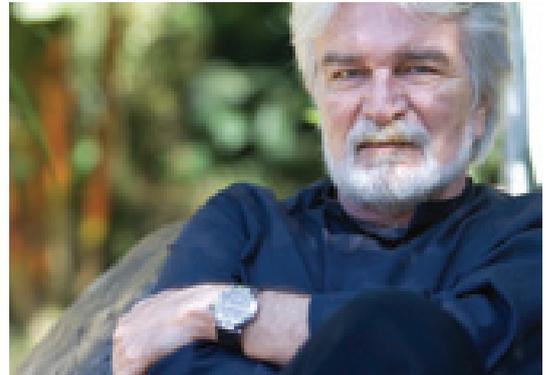
이노칭의 설립자 파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꿈틀대고 있다. 2005년, 이노칭이 문을 연 이래 1백만 명의 관객이 방문했고, 지난 2012년에만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발을 들였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브라질은 아직도 우리를 놀라



올라퍼 엘리아손(Olafur Eliasson) 'Viewing Machine'(2008).

PHOTOGRAPHY: PAOLA MARIA CASSOLA WWW.REXFEATURES.COM

게 할 일이 많은 진귀한 곳이다. 아마존의 심장부 마나우스(Manaus)에는 적도에서도 유럽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아마조나스 극장(Amazon Theatre)이 있고, 삼바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아주 쿨한 파티가 열린다(매년 2~3월경에 열리는 리우 카니발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카니발이기도 하다). 브라질리아도 빼놓을 수 없는 도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20세기에 만들어진 도시이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머지않아 브라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스포츠 축제가 열릴 예정이기도 하다(2014 FIFA 월드컵과 남아메리카 최초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다). 라틴아메리카는 꿈틀대고 있다. 그 안에 있는 환상적인 왕국, 이노칭은 브라질이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술과 자연, 우주에 대한 생각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브라질 드림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mc** writer PAOLA MARIA CASSOLA editor 김지선



Bernardo De Mello Paz

페루 영화 <피츠카랄도(Fitzcarraldo)>는 아마존 강 유역에 사는 오페라광인 사내 '피츠카랄도'의 이야기다. 아마존의 정글에 훌륭한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 것이 꿈인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밀림 속으로 모험을 떠난다. 밀림의 원주민들과 피츠카랄도의 만남은 대중과 선구적인 예술가의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이노칭(Inhotim)을 만든 베르나르두 지 멜루 파스 역시 피츠카랄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하늘이 뺨 뚫린 거대한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이노칭은 어떻게 탄생했나? 내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아트와 자연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나만의 작품을 하나, 둘 사모았고, 이후에 나의 컬렉션이 개인 소장품이 아니라 흥미로운 공공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공원에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개방했다.

이곳에서 기획되는 전시나 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나? 이노칭 소속의 국제적인 큐레이터 팀이 1년에 네 차례 큰 기획을 한다. 조금 있으면 38점의 새로운 대작을 선보일 것이다. 일부 작가만 언급하자면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이르네스투 네투(Ernesto Neto) 등이 참여할 것이다.

이노칭은 지속적인 프로젝트인가? 지금 이노칭에는 1천2백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들의 다수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지역의 문화, 경제적 발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브라질의 예술에 부스터 역할을 하고 싶다. 단지 한 지역을 다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자연, 식물, 조경 그리고 거대한 공간의 조화에 모든 걸 걸었다. 그것은 마법 같은 일이다.

엘리우 오이치카(Hélio Oiticica),
'Penetrável Magic Square #5'(1977).



폴 매카시(Paul McCarthy),
'Boxhead'(2001).